

#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 중심으로

김경하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Influences of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ed on Nursing Students

kyoung-Ha kim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o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G시와 M시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2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독립표본 평균 검정, 일원 배치 분산 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셀프리더십( $\beta=.331, p<.001$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a=.302, p<.001$ )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나타냈으며, 연구모형은 진로준비행동을 38.7%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간호교육 현장에서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진로준비행동,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ing students attending in nursing departments in G and M cities from April to June 2019. The 208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elf-leadership( $\beta=.331, p<.001$ )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a=.302, p<.001$ ) reported to ha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tudy model accounted for 38.7%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asures to promote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in the nursing education field.

**Key Words** :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students

\*This study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Songwon University in 2020(A2020-02).

\*Corresponding Author : kyoung-Ha kim(gh6081@hanmail.net)

Received June 17,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July 13,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 능력 및 가치 등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대학 진학 이전에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겠으나 치열한 입시환경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쉽지 않다[2].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목표를 세우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어 가기 위해 대학생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경우도 졸업 후 간호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역량을 갖추어야 하기에 대학생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입학 후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므로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3]. 이로 인해 취업 후 성공적으로 임상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이탈 및 이직을 하게되며[4,5].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입사 후 1년 이내의 높은 신규간호사 이직률(2018년 38.1%, 2019년 42.7%, 2020년 44.5%)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직 이유로 첫 번째 '타 병원으로의 이직(17.3%)' 두 번째 '업무 부적응(17.1%)'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6],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신이 선택한 직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탐색 및 수집 활동이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직업 세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생활 동안 진로를 결정하고 결정된 진로를 준비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 할 것이다.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도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또는 진로를 결정한 후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도구나 요건들을 갖추어 가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1].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7],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을수록 취업 후 조기 이직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바[4,5],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생활 동안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요구되어 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셀프리더십[8,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0,11] 및 비판적 사고성향[12]에 관심을 두었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세 변인 각각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과업이나 직무의 수행을 위해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입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틀을 개발하는 것으로[13]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자율성과 자발성이 강조되는 활동이기에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주도적 특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제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4]은 진로와 관련된 선택, 활동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진로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0,11], 자신이 잘 해낼 것이라는 신념이 높으면 진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수행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기 조절적인 판단을 하고자 하는 사고 성향 및 습관인 비판적 사고성향[15]도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더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이는 주어진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를 빈번하게 하는 습관이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 진로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은 향후 간호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간호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한 많은 간호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간호대학생은 4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다수의 간호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간호대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최적의 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 각각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세 변인들에 대한 통합적 고찰과 이들 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셀프 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간호교육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최우선적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와 M시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인 13개(인구사회학적 특성 9개, 연구변인 4개)로 산출한 결과 189개로 확인되었다. 이에 근거하고 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은 학과장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대학 및 학과의 진행 절차에 따라 승낙을 받은 후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2부가 불성실 응답을 보여 제외하였으며, 208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 2.2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설문에 앞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 및 연구 참여 중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학년의 경우는 만19세를 초과된 자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Kim과 Kim [1]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도구 16문항에 2문항을 추가한 Lee [16]의 총 18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Lee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측정도구는 Houghton과 Neck [17]의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 Kim 및 Han [18]이 번안·수정하고 Choi [19]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총 35문항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2.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과 Taylor [14]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CDMSES-SF)를 Lee와 Lee [20]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Lee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 2.3.4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un [21]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un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dow Ver 26.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산출을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진로준비행동 정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40점(SD=.4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은 3.54점(SD=.44), 비판적 사고성향의 평균은 3.53점(SD=.39)이었고,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2.59점(SD=.50)이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208)

Variables	M±SD
Self-Leadership	3.40±.4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54±.4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3±.39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59±.50

#### 3.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선행연구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특성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성별, 임상실습 경험 유무, 학교생활 만족도, 이전 학기 성적, 경제상태가 진로준비행동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으로 확인한 결과, 학교생활 만족도와 경제 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이전 학기 성적에서만 상(A학점)인 대상자가 중(B학점) 대상자와 하(C-F학점) 대상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B학점)인 대상자가 하

(C-F학점)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성적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Table 2. Degre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Charac- teristics	Range	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an±SD	t / F (p) Scheffé
Age	>24	192(92.3)	2.61±.50	.672 (.052)
	≤24	16(07.7)	2.53±.38	
Sex	Male	40(19.0)	2.43±.56	-2.295 (.026)
	Female	168(81.0)	2.64±.46	
Grade	1	51(24.5)	2.59±.43	
	2	53(25.5)	2.46±.57	1.935 (.125)
	3	49(23.6)	2.68±.54	
	4	55(26.4)	2.65±.43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04(50.0)	2.52±.51	-2.009 (.046)
	No	104(50.0)	2.66±.48	
Motive for applying	Interest	43(20.7)	2.59±.47	
	Stable job	127(61.0)	2.58±.50	.123 (.885)
	Another's	38(18.3)	2.63±.55	
School life satisfaction	low	29(13.9)	2.39±.42	
	medium	146(70.2)	2.59±.49	2.845 (.039)
	high	33(15.9)	2.76±.55	
Previous semes- ter's credits	low <sup>a</sup> (C-F)	25(12.0)	2.42±.46	
	medium <sup>b</sup> (B)	142(68.3)	2.56±.50	6.095 (.003) <sup>a/c, b/c</sup>
	high <sup>c</sup> (A)	41(19.7)	2.81±.47	
Economic state	low	26(12.5)	2.36±.44	
	medium	175(84.1)	2.63±.50	3.867 (.022)
	high	7(03.4)	2.33±.43	
Work experience	Yes	28(13.5)	2.66±.52	.826 (.410)
	No	180(86.5)	2.58±.50	

#### 3.3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진로준비행동은 셀프리더십(r=.562,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510, p<.001), 비판적 사고성향(r=.428,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541, p<.001)과 비판적 사고성향(r=.623, p<.001)과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208)

Variables	1	2	3	4
	r(p)	r(p)	r(p)	r(p)
1	1			
2	.541 (.001)	1		
3	.623 (.001)	.534 (.001)	1	
4	.562 (.001)	.510 (.001)	.428 (.001)	1

1. Self-Leadership,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08)

Variables	$\beta$	t (p)	Ad. R <sup>2</sup>	F (p)
Self-Leadership	.331	4.240 (.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02	4.274 (.001)	.387	12.879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62	.833 (.406)		

p<.001)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r=.534, p<.001) 또한 유의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으로서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임상실습 경험 유무, 학교생활 만족도, 이전 학기 학점, 경제상태를 더미변수 처리하여 통제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의 예측 변인으로서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이므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대한 결과는 제외하였다. 세 변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228~.968로 .10이상으로 충족되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32~4.384로 10을 넘는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urbin Watson 지수는 1.862(1.802<d<2.198)로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12.879, 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sup>2</sup>)는 .387로 본 연구 변인들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38.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셀프리더십( $\beta = .331, p<.00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a = .302, p<.001$ )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며, 이중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셀프리더십임을 알 수 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교육 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에 평균 2.59로 중간 이상의 진로준비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Han [22]의 연구 2.64점과 Moon [12]의 연구 2.58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40점으로 Lee와 Cho [23]의 연구 3.41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Bae [24]의 연구에서의 3.51점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4점으로 Kang [25]의 연구와 Jang [26]의 연구에서 각각 3.88점과 4.04점보다 낮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53점으로 Lee와 Cho [23] 연구 3.54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Kang [25]의 연구 3.76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은 다른 연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간호교육 내에서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이 진로준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는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ee와 Cho [23]와 Bae [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지적 뿐 아니라 행동적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이 진로준비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Kang [25]과 Jang [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높은 학생은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

을 발휘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는 Lee [23]와 Kang [25]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학생이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학생은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사고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높은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Hwang과 Youn [8], Jang과 Moon [27]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Ko와 Kim [28], Kim [1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보다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고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한적이긴 하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Min, Do 및 Min [29]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oon [12]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단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본 연구 결과가 부분적으로 지지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세 변수 간 상대적 영향력은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 고찰의 한계가 있었지만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셀프리더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간호교육 현장에서 셀프리더십 관련 교과목 및 교과 외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측면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에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촉진을 위해서는 간호교육 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및 취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탐색 할 수 있도록 정보 탐색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희망 분야에 필요한 조건이나 자격 등의 준비를 졸업 시점까지 실제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하겠다.

Kim과 Hwang [10]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된 바, 셀프리더십 관련 교과목이나 교과 외 활동 운영 시 진로와 관련된 내용 및 활동을 융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촉진시키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과 임상 현장의 적응에 필요한 요인으로서 진로준비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간호교육 현장에서 진로준비행동의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계획할 때 교과목의 수업내용과 비교과의 활동내용을 융합적으로 구성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자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들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세분화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들의 하위요인 세분화를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검증이 필요 하겠다.

## REFERENCES

- [1]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2] J. C. Lee & A. J. Hong. (2013).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5(3), 215-245.  
DOI : 10.18211/kjhrdq.2013.15.3.009
- [3] S. J. Park. (2012).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on Career Development for Nursing Students. *The*

-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259-267.  
DOI : 10.5977/jkasne.2012.18.2.259
- [4] Y. J. Ko & I. K.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DOI : 10.5977/JKASNE.2011.17.1.062
- [5] I. O. Moon & K. Y.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DOI : 10.5977/JKASNE.2010.16.1.083
- [6] Hospital Nurses Associatin. (2021.02.09.).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https://khna.or.kr/home/pds/utilities.php>
- [7] S. K. Lee & J. K. Lee. (2008).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3), 1-25.  
DOI : 10.5977/JKASNE.2011.17.1.062
- [8] W. H. Hwnag & C. S. Youn. (2014). A Study on the Moderat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 on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12, 99-124.
- [9] M. K. Moon & S. Y. Kim.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2(2), 162-169.  
DOI : 10.21032/jhis.2017.42.2.162
- [10] G. H. Kim & E. H. Hwang. (2016).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436-445.
- [11] K. H. Kim. (2018).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3), 399-408.  
DOI : 10.5392/JKCA.2018.18.03.399
- [12] J. Y. Moon. (2019).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11), 462-473.  
DOI : 10.5392/JKCA.2019.19.11.462
- [13] C. C. Manz & H. P. Sims. (2001). *New super leadership: Leading other to leadthemselves*. Sanfrance : Berrett-Koehler.  
DOI : 10.5465/ame.2001.5898769
- [14] N. E. Betz, K. L. Klein & K. M. Taylor. (1996). Evaluation of a short fro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DOI : 10.1177/106907279600400103
- [15] N. C. Facione, P. A. Facione & C. A. Sanchez. (199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as a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8), 345-350.
- [16] M. S. Lee. (2003).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 [17] J. D. Houghton & C. P. Neck.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DOI: 10.1108/02683940210450484
- [18] Y. K. Shin, M. S. Kim & Y. S. Han.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313-340.  
DOI : 10.16983/kjsp.2009.6.3.377
- [19] J. Y. Choi. (2016).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ulji University, Daejeon.
- [20] K. H. Lee & H. J. Lee.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1), 127-136.
- [21] J. Yoon.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22] S. H. Han. (2018).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7), 379-389.  
DOI : 10.35873/ajmahs.2018.8.7.038
- [23] D. Y. Lee & J. H. Cho. (2018). Convergence Influence of Self-Resilience, Critical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0), 561-569.  
DOI : 10.15207/JKCS.2018.9.10.561
- [24] K. H. Bae. (2019). Relationship of Personality Development Level, Self-R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Cas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515-525.

DOI : 10.35873/ajmahs.2019.9.7.046

- [25] D. H. S. Kang. (2020). The Influence of Nursing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4(4)*, 191-203.  
DOI : 10.12811/kshsm.2020.14.4.191
- [26] M. H. Jang, M. S. Kwak & J. R. Ah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9(1)*, 1-18.  
DOI : 10.37210/JVER.2020.39.1.1
- [27] T. J. Jang & M. K. Moon.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2(4)*, 344-352.  
DOI : 10.11111/jkana.2016.22.4.344
- [28] Y. J. Ko & N. S. Kim. (2020).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diated by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4)*, 301-308.  
DOI : 10.14400/JDC.2020.18.4.301
- [29] K. H. Min, Y. J. Do & H. H. Min. (2020).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4)*, 525-533.  
DOI : 10.13065/jksdh.20200048

김 경 해(Kyung-Ha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인간심리

· E-Mail : gh6081@hanmail.net